

1일 1강...비, 뜻밖의 '왕의 귀환'

당시 조롱받았던 곡 '역주행' 대박 강 페러디 붓물·'강팸' 신조어 등장 "자존감 높은 '공정 에너지' 통했다"

'다시 돌아왔지/내 이름 레인(RAIN)/.../왕의 귀환/15년을 뛰어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타고난 이 멋이 어디가/.../난 꽤 많은 걸 가졌지/...'(노래 '강')

스스로 '왕'이라며 '꽤 많은 걸 가졌다'는 허세의 사내. 고릴라처럼 크고 격렬한 몸짓, 랩과 댄스, 발라드를 오가는 편곡의 어색함, 시종 비장한 표정, 사람들은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너의 영광이 이미 빛바랜 걸 모르느냐'며 비웃었다. 3년 만에 돌아온 사내의 '쿨'한 표정을, 세상은 '1일 1강!(하루 한 번 가수 비의 '강' 뮤직비디오를 본다)'이라며 반기고 있다.

● '조롱'에서 '역주행' 인기로

'강'은 비의 2017년 12월 앨범 '마이 라이프(MY LIFE)' 타이틀곡이다. 비는 2002년 '나쁜 남자'로 데뷔해 이듬해 '태양을 피하는 방법', 2005년 '잇츠레이닝(It's Raining)', 2008년 '레이니즘(Rainism)'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0년대엔 큰 성공작이 없었다. '강'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뮤직비디오는 트렌드를 한창 비껴간 실패작으로 비쳐 유튜브 댓글창에서 누리꾼 사이에 '조롱'의 대상이 됐다.

압권은 1일 "강" 조사 나왔다.



'1일 3강을 아십니까?' 가수 비가 2017년 발표한 '강'이 뒤늦게 화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강'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비를 향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사진출처 | '강' 뮤직비디오 캡처

2020년 5월1일 오전 10시 기준 비(RAIN)-강 GANGOfficialM/V 조회수 6,859,592회다. 39,831UBD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댓글이었다. 'UBD'는 비의 주연작인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총 17만 관객 수치를 조롱한, '1UBD=17만'의 의미다. 논란이 일자 통계청이 사과하면서 '강'이 새삼 화제가 올랐다.

하지만 인기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발화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한 어

고성 유투버가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1일 1강 여고생의 강(Rain-Gang cover)' 영상이 2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달 4일 유투브 채널 '문명특급'도 '숨들명(숨어 듣는 명곡)'으로 소개했다. 수천건에 불과했던 뮤직비디오 유투브 조회수가 급증했다. 다양한 패러디물과 '강팸'(강 페달리) 등 신조어가 나왔다.

절정은 16일 MBC '놀면 뭐하니?'였다. 비가 출연했다. 유투브 등 케이팝 가

수들의 온라인 팬덤 지표를 집계하는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는 14일 6만7000여건에서 15일 21만·16일 31만·17일 47만6000여건으로 치솟았다. 이후에도 하루 평균 26만여건에 달한다. 인기 아이돌 스타들 틈에서 21일 현재 누적 954만여 조회수로 43위에 올랐다.

●공정의 에너지를 안기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트렌드가 지난 콘셉트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과 조롱이 젊은 콘텐츠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즐거운 놀이가 됐다"고 봤다. '맛글놀이', '영상과 사진, 그림 등 온라인상 유행 콘텐츠'를 뜻하는 'ميم(Meme)'의 전형이라는 시선이다.

'놀면 뭐하니?' 속 비의 모습도 공정의 에너지로 다가왔다. 비는 "(뮤직비디오) 요즘 사람들이 보기 별로였던 거다. 맛글도 재미있다"며 "입술 깨물기·윙크 금지" 등 오랜 팬이 온라인을 통해 건넸다는 이른바 '시무 20조'에 대해 "쿨"하게 반응했다. "아직 목마르다,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애정을 당부한 그는 "1일 3강은 해야 한다"며 웃었다.

시청자들은 "자존감이 높다" "존경한다" 등 박수를 보냈다. 정 평론가는 "비와 함께 즐기는 차원의 소통"이라고 말했다. '무대를 다시 한번 적시지/레인 이펙트/나비효과'라는 '강'의 노랫말처럼 다시 팬들 앞에 나설 비에게 기대의 시선이 쏟아지는 이유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원픽! 위클리 '업 앤 다운'



이무생

빅뱅 탭

'부부의 세계' 이무생의 재발견 '럽스타그램' 빅뱅 탭 또 지중수

역시 인생은 '한방'이다. 각종 작품에서 악역을 도맡아 하며 온갖 욕을 먹다가도 한번 선하고 멋있는 역할을 맡으면 그걸로 끝이다. 과거에 록 박했던 '미운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진다. 연기자 이무생도 그렇다.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혼남 정신과 전문의 김윤기로 출연해 여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훔쳤다. 인터넷 스타 박막례 할머니가 '돌아오!(?) 세계'라고 욕했던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김윤기 선생이었다. 그는 이 드라마를 통해 '이무생의 발견'이라는 평가와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에 빛대어 만든 '이무생로랑'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반대로 사회적 논란에 휘말리며 대중의 지탄을 받은 빅뱅의 탭은 지금까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분위기다.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또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한 그는 소집해제 후에도 최근까지 잡음이 시달리고 있다.

연기자 김가빈과 일명 '럽스타그램'(SNS를 통해 연인과 애정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을 과시한 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자 팬들은 "또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앞서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며 "한국에서 컴백 안 할 거다.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마이 웨이'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지상파 축소, 케이블 확장...달라진 '예능 지도'

지상파 프라임타임 배제 '썰렁한 편성' E채널·E채널 등 케이블, 스타PD 영입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채널 사이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인기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반면, E채널 등 케이블채널들은 대대적으로 새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예능 판도'에 뚜렷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소극적 태도는 '프라임타임'인 주말 밤 시간대 프로그램을 올해 들어 일부 축소할 데서 엿보인다. MBC는 일요일 밤 '끼리끼리'를 폐지하고, 토·일요일 오후 5시대에 평일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고 있다. SBS는 금요일 예능프로그램을 없애고, '정글의 법칙'만 토요일에 배치했다. 최근 3년 사이 금요일 밤 11시대로 그램으로 재웠던 것에 비하면 썰렁한 편성 표다.

일부 방송관계자들은 최근 약화된 방송사 재정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21일 "2~3%대 시청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보다 기존 인기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게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재방송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고 말했다. 최근 '해피투게더 4'와 '개그콘서트'를 잇따라 없앤 KBS 역시 다르지 않다. 기획 중인 새 프로그램도 1~4부작 파일럿 포맷이 대부분이다. "짧게 치고 빠지자"는 전략이다.

신생 케이블 채널이나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는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가 주춤한 때에 시청자에 낮은 연

예인을 내세운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박차를 가해 인지도를 높일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E채널은 5월 가수 이상민이 진행하는 '탑골웹소디'를 방송한 데 이어 7월 방송인 신동엽과 가수 장윤정 등이 나서는 '사랑의 재개발'을 선보인다. 또 MBC '라디오스타'와 '무한도전' 등을 연출한 PD들을 대거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카카오M도 JTBC '비긴어게인'의 오윤환 전 PD를 비롯, MBC '진짜사나이' 김민중·'마이 리틀 텔레비전' 박진영·권해봉 전 PD 등을 통해 6월 중 스포츠(짧은 분량)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유지혜 기자

변화하는 음식문화

주방기계 선택이 매출을 좌우한다!

발명특허 원적외선 압력식 바베큐기계 '세프스타'



주요 식재료를 조리할 주방기계는 창업에 있어 필수 아이템이다. 치킨집과 호프집, 오리집, 소주방, 보쌈집, 양고기집, 바베큐전문점 등은 메인 요리를 조리할 주방기계의 선택에 따라 맛과 매출차이가 커질 수 있어 창업 시 주방기계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수요자의 음식문화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웰빙음식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치킨 및 고기창업 외식업체들도 저지방 저칼로리 조리기계를 도입하여 바베큐 메뉴를 선보이는 등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8년을 한결같이 압력식 바베큐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일창하이테크에서 개발한 '세프스타' 시리즈는 맛은 물론 영양까지 고려한 조리기구로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하다. 일창하이테크는 2000년 9월에 주방기계 신기술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바베큐기계 분야의 선두업체이며 저지방 건강식 치킨조리에 적합한 발명특허품

원적외선 압력식 바베큐기계로 창업 고민해결!

원적외선 압력식 바베큐기계 세프스타(발명특허 제 117156호)를 선보였다.

닭 6마리를 14분에 똑딱!

'세프스타' 시리즈중 1, 2, 3은 2단석쇠로 되어있어 바베큐용 닭4마리를 한번에 조리 가능하며 시리즈 4, 5는 3단 석쇠로 되어있어 최대 닭 6마리까지 조리가 가능하다. 원적외선과 기체의 압력방식으로 조리시간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유지비용 절감효과가 크며 컴퓨터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재료에 맞는 알맞은 온도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론트도어 방식인 스팀을 장착하여 실사용이 편리하며 이중 안전설계(안전밸브와 비상밸브)되어 안전하다. 석쇠는 인체에 무해한 세라믹코팅 처리되어 오랜 시간동안 사용 가능하며, 여벌로 구입이 가능하다.

일창하이테크에서 제작된 압력식 바베큐기계 '세프스타'는 잔고장이 거의 없어 기계를 구입한 고객분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유통채널 없이 직접 제조 판매

하기 때문에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프스타로 창업효과!

압력식 바베큐기계 '세프스타'는 치킨, 오리, 닭갈비, 통삼겹살, 양갈비, 돼지갈비, 떡갈비 등 많은 요리가 가능하며 기름이나 불에 구운 것보다 육즙이 살아있어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찾을 정도로 맛이 훌륭하다. '세프스타'는 한번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으며, 튀김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현대인들의 건강 걱정인 트랜스지방에 대한 염려가 없다. 스팀을 피우려면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세프스타'는 시간만 정해 놓으면 알아서 조리를 해주므로 업주 입장에서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베큐요리 체인사업을 계획하신 분이 나 장사가 잘되지 않아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세프스타'로 조리방법만 바꾸어도 새롭게 창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화상담 후 방문하면 시식을 해볼 수가 있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치까지 해 줌으로 업주는 '세프스타'를 놓을 위치만 선정해주면 된다.

바베큐 체인본부 상담원명 구입 및 상담전화: 02-928-9281~2